

전북 관광안내소 60% 안전용품 없어

30곳 중 19곳 해당... 한 곳당 평균 인력 3.7명 1년 평균 346일 근무로 격무에 시달려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전북지역의 관광안내소 절반 이상이 구급약품과 소화기 등 안전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관광안내소 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관광안내소 30곳 중 안전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곳은 19곳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전자기기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26곳으로 비교적 높았다. 또 수화물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전체의 76.7%(23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안내소 한 곳당 평균 인력은 3.7명(비정규직, 자원봉사자의 비율은 1대 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

년 평균 346일을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처우개선과 휴식시간 보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이외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은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문체부의 운영지침에 따른 일 반현황 14개 문항, 평가지표 80개 문항, 부가조사 5개 문항을 종합한 전북 지역 관광안내소의 평가 결과는 100

점 만점에 평균 67점으로 전국 평균(63점)보다 조금 낮았다.

김 의원은 "관광산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광 안내소 제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면서 "중동이나 동남아 관광객을 위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방한 관광객 다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말년휴가 병장 교통사고 사망

지난 7일 오전 3시 36분께 군산시 공단대로에서 A(22)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진주를 들이받아 병장이 차량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말년 휴가를 나온 병장 B(22)씨가 숨졌다. 동승자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운전자 A씨에게 단속 수치를 넘기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로 측정됐다. /이성민 기자



‘막바지 연휴, 한옥마을에서’ 추석 연휴 막바지,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사진은 하늘에서 바라본 한옥마을 풍경.

안전시설 없는 도로서 추락 관리기관 70% 책임

안전시설이 없는 도로에서 추락한 경우 해당 도로 관리기관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허명상 부장판사)는 9일 A씨와 가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가 2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3일 오후 5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제방도로에서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면서 쓰러져 5m아래 수로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큰 부상을 입어 반흔수상상태에 빠졌다.

A씨의 가족은 "제방도로에 안전장치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졌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사고 위험이 높고 수로와의 높이가 5m나 되는 만큼, 추락할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시설만 갖췄다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사고 발생의 1차적인 원인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 제방도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관리주체에 이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성민 기자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 11월1일 개최

‘슬로, 세계가 묻고 전주가 답하다’ 주제 3일까지 진행... 슬로어워드 시상식도

국제 도심형 슬로시티 수도인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슬로포럼과 슬로어워드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전주시와 국제슬로시티연맹 한국슬로시티분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전주향교에서 '제1회 전주 세계 슬로포럼&슬로어워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가 △자중차보다 사람 △콘크리트보다 녹색생태 △직선보다 곡선을 추구하는 전 세계 슬로시티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첫 번째 국제대회다.

먼저, '슬로, 세계가 묻고 전주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포럼에는 슬로운동의 선구자이자 TED강사로 널리 알려진 칼 오너리(영국), 인간사회의 속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플로리안 오프츠(독일)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또, 차 없는 도시로 알려진 스페인 폰테베드라시의 미구엘 로레스 시장이 전주를 찾아 행정과 시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로 이루어 낸 '차 없는 도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사오 엔 텡 대만 풍린시장과 이블드 로덴버그 네덜란드 델플란드 시장, 사이토 무츠미 일본 NPO이사, 민홍철 국회의원, 김인자 한국심리상담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제행사에서는 슬로시티의 철학과 목적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인 슬로어워드 시상식도 열린

다. 슬로어워드는 국제부문(단체, 개인)과 국내부문(단체, 개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한국슬로시티분부가 추천하고 국제슬로시티연맹 및 관계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세계 최초로 전주시가 마련한 슬로포럼&슬로어워드는 세계 각국의 특별한 슬로시티 정책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참석한 회원도시들과의 연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행사 기간 사람과 사람이 있는 국제슬로시티 전주를 집중 홍보해,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수도이자 국제 관광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50+ 인생학교’ 입학생 모집

전주시평생학습관

전주시가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후를 고민하는 50세 이상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추진한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7주간 매주 월요일 오전 7~10시에 진행되는 '50+ 인생학교'에 참여할 입학생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생학교에서는 김사은 PD(원음방송, 수필가)가 교장을 맡아 '4차 산업혁명시대 나의 미래 일자리'와 '생애 전환기 일과 돈에 대한 발상 전환'을 주제로 두 차례 포럼을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영화와 연극 워크숍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찾는 시간을 갖고, 자치회를 구성해 졸업여행을 기획해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졸업식에서는 그동안의 생

각들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나의 50+ 인생 스토리텔링 발표회' 및 '나의 인생지시선언' 시간도 진행될 예정이다.

인생학교에는 인생전환기 자신을 탐색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싶은 시민, 삶의 전환점을 찾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싶은 50대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전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www.jedu.co.kr)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81-5267)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은 "능력, 의지, 경제력 삼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는 50 플러스 세대를 전주를 움직이는 활력으로 기능하도록 교육과 일자리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 다양한 50플러스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햇살아파트 보급사업 신청하세요”

전주시, 이달 말까지... 배란다형 태양광 모듈 지원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배란다형 태양광 모듈을 지원하는 '햇살아파트 보급사업'을 위한 단체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선착순 마감 후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0일까지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는 배란다형 태양광 모듈(250W~260W)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업체 4곳을 선정했으며, 올 연말까지 50여 가구에 보급하고 오는 2025년까지 1만 가구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햇살아파트에 선정되면 가구당 50만 2,500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배란다

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된 가정에서는 한달 평균 4,000~8,000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시는 에너지자립률과 전력자립률을 오는 2025년까지 각각 30%와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지역 에너지계획인 '에너지디자인 3040'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을 활용하면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onju.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81-5062)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바다에 빠진 굴착기 운전자 숨진 채 발견

해안가에서 준설선 접안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바다에 빠져 실종됐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 53분께 부안군 개화면 양지항 인근 바다에서 굴착기 운전자 A(55)씨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48분께 부안 가력도에서 준설선 접안 작업 중 굴착기가 바다에 빠지면서 실종됐다.

해경과 소방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이다 낚이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자 구조작업을 중단했다. 이어 다음날인 8일 오전 9시부터 수색을 재개해 시신을 발견했다.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굴착기가 준설선에서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빠진 것 같다"며 "작업 책임자나 소속 업체에도 사고 책임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